캐나다 증시 지수의 최근 등락 흐름 (2021~)

2021년부터 현재(2025년 4월 17일)까지 캐나다 증시의 대표 지수인 **S&P/TSX** 종합지수는 상당한 변동성을 경험하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등락 흐름 요약:

- **2021년:**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기대감과 저금리 환경에 힘입어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및 소재 섹터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인플레이션 심화,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조정을 겪으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고유가로 인해 상승했지만, 기술주를 비롯한 성장주는 금리 인상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2023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었지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과 경기 침체 우려 완화로 인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 **2024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 영향 지속 및 경기 불확실성으로 등락을 반복했으나, 하반기에는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금리 인하 시작으로 기술주, 부동산, 인프라 관련 주식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S&P/TSX** 종합지수는 연간 **18%** 상승했습니다.
- **2025년 (현재까지):** 연초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미국의 대 캐나다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2025년 4월 16일** 기준, 캐나다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 (**policy interest rate**)를 **2.75%**로 유지했습니다. <https://www.bankofcanada.ca/>

주요 영향 요인:

1. 금리:

- **2021년 저금리 환경:** 경제 활동 회복을 위한 낮은 금리 수준은 기업의 차입 비용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자극하여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캐나다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소비 위축, 자산 가치 하락 등을 야기하며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민감한 성장주와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 **2024년 하반기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따라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차입 비용 감소, 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2025년 금리 동결 및 추가 인하 기대:** 현재 금리 수준 유지와 향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혼재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정부 정책:

- **재정 정책:** 팬데믹 기간 동안의 경기 부양책은 초기 시장 회복에 기여했지만, 과도한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 산업 정책: 특정 산업 (예: 친환경 에너지, 기술) 육성 정책은 해당 섹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무역 정책: 최근 미국의 대 캐나다 관세 부과 가능성은 관련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투자 심리 위축을 유발하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시장 변화:

- 인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비용 증가 및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를 초래하여 전반적인 경제 성장 둔화 및 기업 실적 악화 우려를 낳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글로벌 경제 상황: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 성장 둔화 또는 불안정은 캐나다 경제 및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원자재 가격: 캐나다 경제는 원자재 (특히 에너지 및 광물) 수출에 크게 의존하므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은 관련 기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증시 전체의 등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고유가는 에너지 섹터 상승을 견인했지만, 가격 하락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술 혁신 및 산업 구조 변화: 인공지능, 친환경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산업 구조의 변화는 특정 섹터의 성장 기대감을 높여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1년 이후 캐나다 증시는 글로벌 경제 상황, 금리 변동, 정부 정책, 그리고 특히 원자재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등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향후 캐나다 증시의 방향성은 인플레이션 추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글로벌 경제 성장세,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